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목 차

■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중고령자의 일자리 구조	2
3. 종합 및 시사점	12
[첨부]	17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임 희 정 연구 위 원 (2072-6218, limhj9@hri.co.kr)

□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 개요

한국의 중고령자(50~64)는 인구 비중 증가, 최대 소비지출 연령대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 중고령자는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 등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고 가계의 생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면 중고령자의 복지지출 감소와 국가 경제 성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고령자 일자리를 노동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구조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고령자의 일자리 구조

중고령자의 일자리 구조를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자리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중고령자의 고용률, 실업률, 학력별 및 임금별 추이를 고찰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중 등 취업형태별, 산업별 및 직종별 추이를 점검한다.

(노동공급 측면) 첫째,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다. 분석 기간중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6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70%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2.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비교 대상인 15세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60% 내외, 실업률은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학력별로 보면 중고령 임금근로자 고졸이하 비중이 하락세이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졸이하 비중이 분석 기간인 최근 14년간 10.5%p 하락하여 73.9%를 차지하고 전체 평균 52.1%(분석 기간 중 10.0%p 하락) 대비 높다. 중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졸이하 비중은 8.3%p 하락한 85.1%로 임금근로자 대비 하락폭이 작다. **셋째, 임금별로 보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완만하게 상승했다.**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2.5%p 상승한 28.2%로 전체 평균 28.8%(3.4%p 하락) 대비 여전히 낮다. 비정규직은 0.3%p 상승한 8.5%로 고임금을 받는 비중이 임금근로자 대비 작다. **넷째, 학력과 소득을 연계하여 보면 중고령자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낮아지고 저학력·중임금의 비중도 크게 하락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중고령 저학력·저임금 임금근로자는 3.9%p 하락한 7.1%로 낮아지나 전체 평균 4.4%(0.8%p)보다 여전히 높다. 비정규직의 저학력·저임금은 14.4%(7.1%p 하락)로 학력과 임금 조건이 임금근로자 대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령 저학력·중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5%(19.8%p 하락)로 크게 하락했으나 전체 평균 8.0%(6.6%p)보다는 높다. **다섯째, 일자리 선택동기로 보면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마지못해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 중고령 임금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최근 9년간 40% 이상이고 전체 평균 30%보다 높다. 비정규직은 그 비율이 60% 이상으로 일자리 선택 여지가 임금근로자보다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선택 동기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이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90% 내외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동수요 측면) 첫째, 취업형태 변화로 보면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중이 하락세이나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중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14년간 15.5%p 하락한 39.3% 전체 평균 27.5%보다 크다. 비정규직 비중은 8.7%p 하락한 38.5%로 전체 평균 32.4% 대비 크다. 둘째, 산업별로 보면 중고령 근로자의 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이 상승세이나 광·제조업 부문 고용 비중은 하락세이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 비중은 여전히 작다. 중고령 임금근로자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비중이 3.8%p 상승하여 69.3%까지 증가하나 전체 평균 74.1%(6.5%p 상승)보다 낮다. 비정규직 서비스 부문은 6.0%p 증가한 74.1%로 임금근로자 대비 상승 폭이 크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중고령자의 비중이 19.5%(1.9%p 하락)로 하락세이나 전체 평균 20.5%(5.1%p 하락)보다 작다. 비정규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2.2%p 하락한 7.0%로 임금근로자 대비 크게 낮다. 셋째, 기업규모별은 중고령 근로자의 '100인 미만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100인 미만 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비중보다 크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100인 미만 기업' 근무 비중이 최근 14년간 0.4%p 증가한 82.4%로 전체 평균 78.1%(0.2%p 하락)보다 높다. 비정규직은 0.9%p 하락한 91.8%로 임금근로자 대비 영세한 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넷째, 직종별은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순노무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개선 정도는 미흡하다.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 부문에서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6.6%p 증가한 27.3%로 전체 평균 45.6%(5.1%p)보다 크게 낮다. 비정규직은 4.3%p 하락한 11.2%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종 일자리 종사 비중이 크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9.7%p 하락한 25.3%로 15.7%(1.5%p 하락)보다 크게 높다.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종은 7.4% 하락한 41.6%로 임금근로자 대비 단순 직종 근무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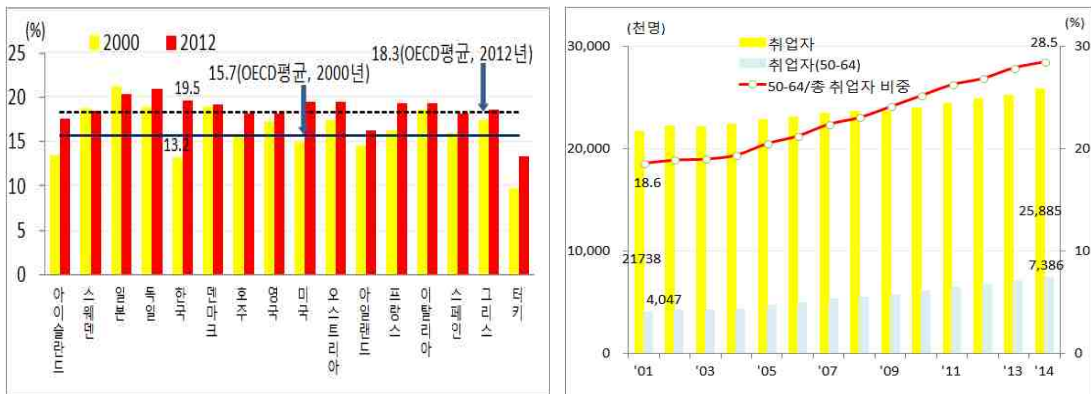
■ 시사점

전반적인 중고령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일자리 개선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첫째, 노동자 숙련도 향상을 위해 노동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수준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학력과 임금수준 등 수준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셋째, 기업내 교육 및 퇴직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업소개 및 일자리 매칭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업종에 대한 성장 활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단순노무업종 및 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1. 개요

- 한국 중고령자¹⁾는 인구 비중 증가, 최대 소비지출 연령대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한국 중고령자 인구의 비중 증가 등 고령화로 인한 제반 문제 부각
 - 한국의 중고령자(50~64)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3.2%에서 2012년 19.5%로 6.3%p 증가. OECD 평균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15.7%에서 2012년 18.3%로 2.3%p 증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 우려, 고령층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등 문제 부각²⁾
 - 한편, 한국의 중고령자는 가계의 생계 안정 및 경제 성장 제고에 기여
 - 한국 중고령자는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 등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고 가계의 생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령층임
 -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면 중고령층 복지지출 감소와 국내 경제 성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중고령자 취업자 비중은 2001년 18.5%에서 2014년 28.5%까지 증가
- 본 보고서에서는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최근 14년간 추세적 구조변화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 중고령자를 국내 경제성장의 부담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세적인 일자리 변화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주요국 중고령자 인구비중 추이 > < 중고령자 취업자의 추이 및 비중 >



자료 : 1) 주요국 중고령자 인구비중은 OECD DB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재구성.
 2) 중고령자 취업자 추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1) 중고령자는 만 50~64세의 연령대를 의미. 장년(長年)으로 표현되며 30~40대를 의미하는 장년(壯年)과 구분됨. 고용 관련 연구에서 50세 이상 75세 미만을 중고령자로 구분하기도 함.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준고령자는 50~54세,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인식,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50~65세 미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명칭 변경(『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개정안(2012)』).

2) 고용노동부, 「장년 고용 종합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2014년 9월.

2. 중고령자의 일자리 구조

□ (연구 방법) 중고령자 일자리를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구분하고 최근 1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를 점검

- 일자리의 구조 점검을 위한 지표

- 본 보고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구조를 점검
- 중고령자(50~64)에 해당하는 각종 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적으로 계산

- 일자리 구조 분석 자료

-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1년 8월~2014년 8월(14년) 자료를 사용

<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 지표 >

항목	분석 지표
① 노동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실업률 - 학력별 추이 - 임금수준별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력 · 고임금/저학력 · 저임금 비중 - 자발적/비자발적 선택
② 노동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형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 산업별 추이 - 기업규모별 - 직종별 일자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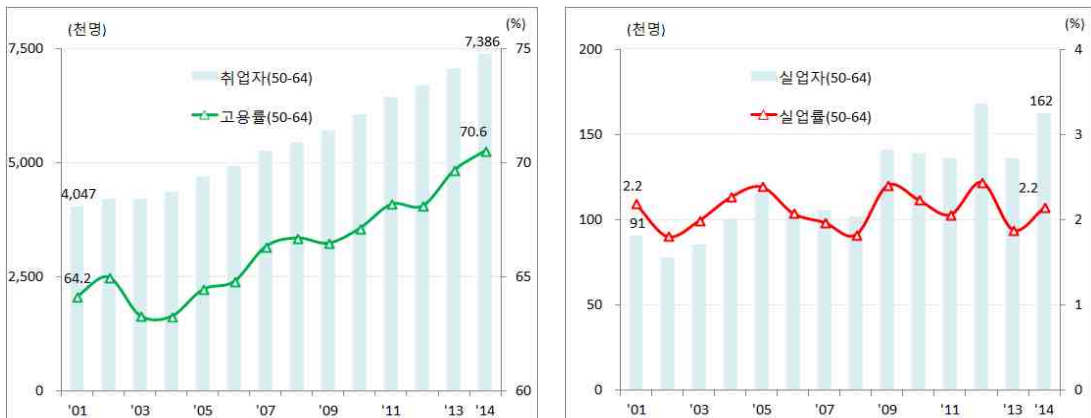
① 노동공급³⁾

□ 중고령자의 고용률 상승이 지속되고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추세적으로 작아지고 저학력·중임금 비중도 크게 하락⁴⁾

○ (고용지표 변화)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70%를 상회하며 개선되고 실업률은 2.0%내외 낮은 수준을 유지

- 취업자 : 중고령자의 취업자 규모는 최근 14년 연평균 4.0% 증가하고 고용률은 6.4%p 증가하여 70.6%를 기록
 - 15세이상 인구의 취업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연평균 1.4% 증가하고 고용률은 1.5%p 증가하여 60.8%를 기록
- 실업자 : 중고령자의 실업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연평균 4.6% 증가하고 실업률은 2.0%내외에서 머뭇
 - 15세이상 인구의 실업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연평균 0.64% 증가하고 실업률은 3.0%을 이상을 기록

< 중고령자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중고령자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학력별)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졸이하 비중이 최근 14년간 10.5%p 하락한 73.9%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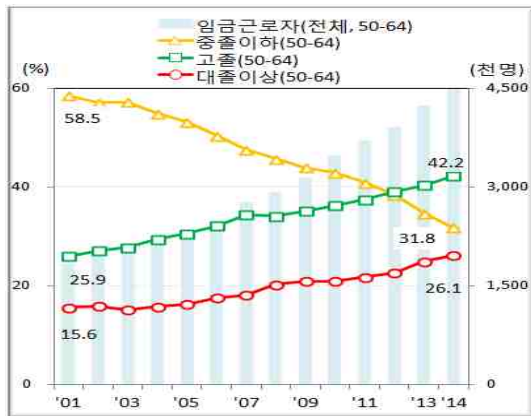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 고졸 비중이 최근 14년간 16.3%p 증가하여 42.2% 기록한 반면, 중졸이하 비중은 26.7%p 하락하여 31.8% 기록
 - 전체 인구 고졸 비중이 최근 14년간 2.9%p 하락하여 39.0% 기록하고 중졸이하 비중은 7.0%p 하락하여 13.1% 기록. 고졸이하 비중의 전체 평균은 52.1%(10.0%p 하락)

3) 전체인구의 통계 수치는 “【첨부】중고령자 일자리 관련 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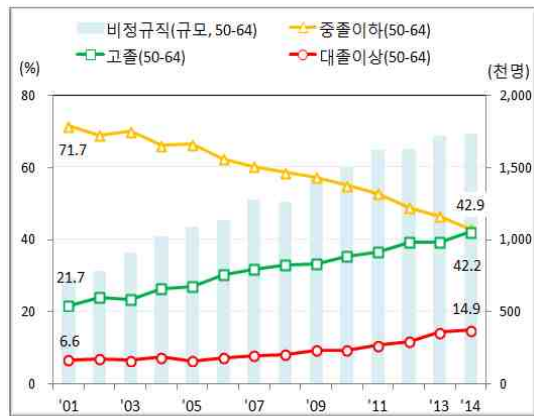
4)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150% 이상, 중임금은 50% 이상~150% 미만, 저임금은 50% 미만을 의미. 고학력은 대졸 이상, 저학력은 중졸 이하를 의미.

-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대졸이상 비중이 최근 14년간 10.5%p 증가한 26.1% 기록
-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의 대졸이상 비중이 최근 14년간 9.9%p 증가하여 47.9% 기록
- 비정규직 근로자 : 중고령자 고졸 비중이 최근 14년간 20.5%p 증가하여 42.2% 기록한 반면, 중졸이하 비중은 28.8%p 하락하여 42.9% 기록
- 중고령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졸이상 비중이 최근 14년간 8.3%p 증가하여 14.9%를 기록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비중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학력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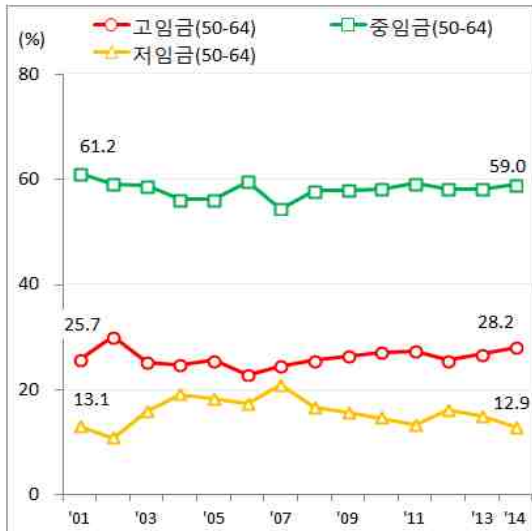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임금 수준별) 고임금⁵⁾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완만하게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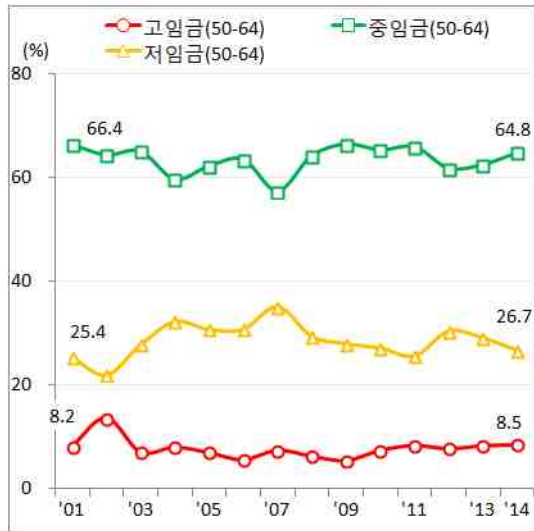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의 고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2.5%p 증가하고 저임금 비중은 0.2%p 하락
 - 중고령자의 중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2.2%p 하락하여 59.0% 기록한 반면, 고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2.5%p 증가하여 28.2% 기록
 - 중고령자의 저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0.2%p 하락한 12.9% 기록
 - 전체 인구의 중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0.6%p 하락한 59.1% 기록했고 고임금 비중은 3.4%p 하락한 28.8% 기록
- 비정규직근로자 : 중고령자의 고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0.3%p 증가한 반면, 저임금 비중은 1.3%p 증가
 - 중고령자의 중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1.6%p 하락하여 64.8% 기록한 반면, 고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0.3%p 증가하여 8.5% 기록
 - 중고령자의 저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1.3%p 증가한 26.7% 기록
 - 전체 인구의 중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2.0%p 하락한 58.5% 기록했고 고임금 비중은 4.3%p 하락한 10.1% 기록

5)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150% 이상, 중임금은 50% 이상~150% 미만, 저임금은 50% 미만을 의미.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소득별 비중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소득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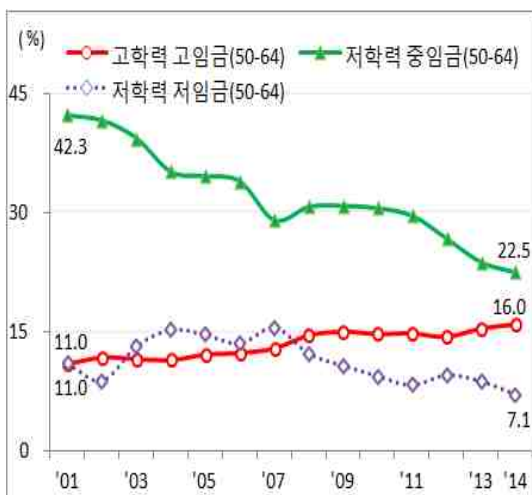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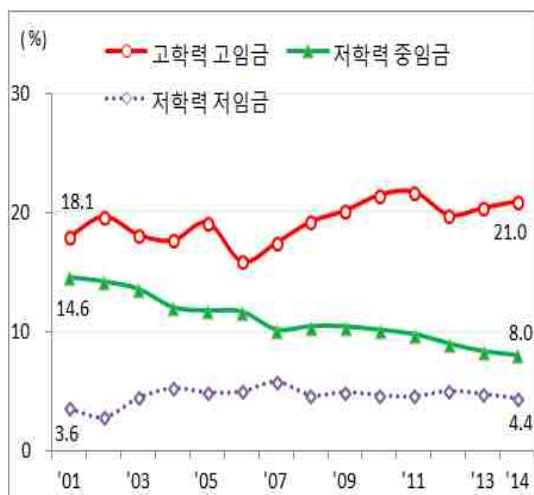
○ (학력과 소득 연계) 중고령자 저학력·저임금 비중은 낮아지고 저학력·중임금의 비중도 크게 하락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의 저학력·저임금의 비중은 3.9%p 하락한 7.1% 기록
- 저학력·중임금의 비중은 최근 14년간 19.8%p 하락한 22.5% 기록
- 중고령 고학력·고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4년간 5.0%p 증가한 16.0%
- 전체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2014년 4.4%로 상승, 저학력·중임금 비중은 8.0%로 하락. 고학력·고임금 비중은 2014년 21.0% 상승
- 고학력은 대졸 이상, 저학력은 중졸 이하를 의미

< 50-64인구 학력 및 임금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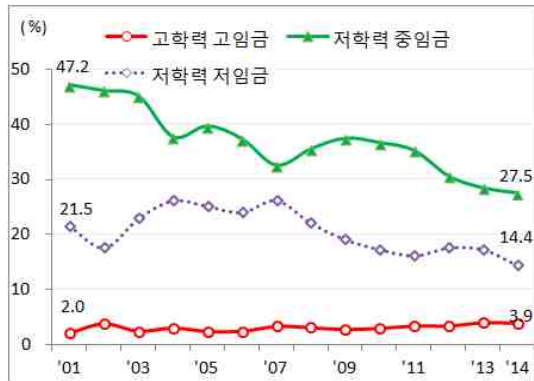
< 전체 인구 학력 및 임금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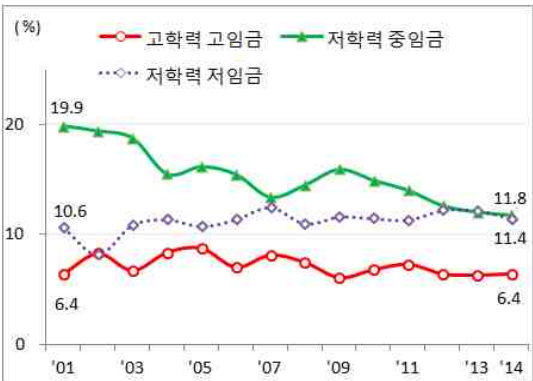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비정규직 : 저학력·중임금의 비중은 2007년 32.5%까지 하락한 후 2010년 36.7%로 반등하나 이후 하락하여 27.5% 기록
 - 중고령자의 저학력·중임금의 비중은 최근 2004년 26.2%까지 증가했으나 11.4%p 하락하여 14.4% 기록
 - 중고령자의 고학력·고임금이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4년간 1.9%p 증가하여 3.9%를 차지
 - 전체 고학력·고임금 6.4%, 저학력·저임금 11.4%, 저학력·중임금 11.8% 기록

< 50-64인구 비정규직 학력 및 임금별 추이 >



< 전체 비정규직 학력 및 임금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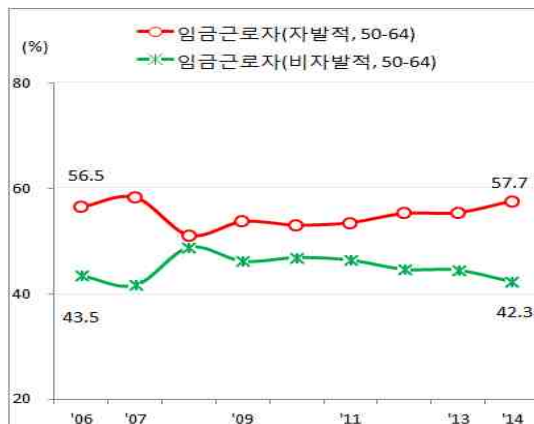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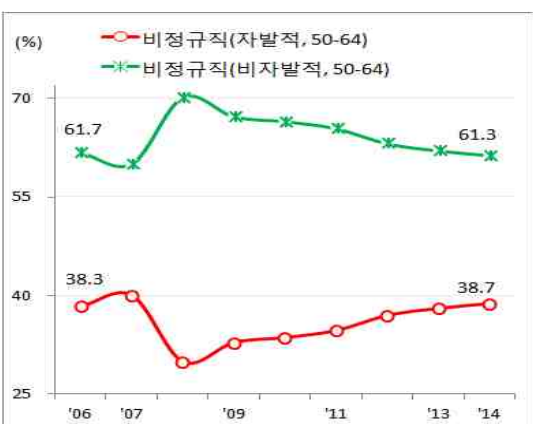
○ (일자리 선택동기)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마지못해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비율은 최근 9년간 1.2%p 증가한 57.7%이고 전체 평균 67.8% 대비 10.1%p 낮음
 - 전체 인구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비율은 최근 9년간 0.5%p 하락한 67.8%
- 비정규직 : 중고령자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비율은 2008년 29.9%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9년간 0.4%p 증가한 38.7%로 전체 평균 49.7% 대비 11.0%p 낮음
 - 전체 인구 비율은 2008년 40.2%로 저점이고 최근 9년간 1.8%p 하락한 49.7%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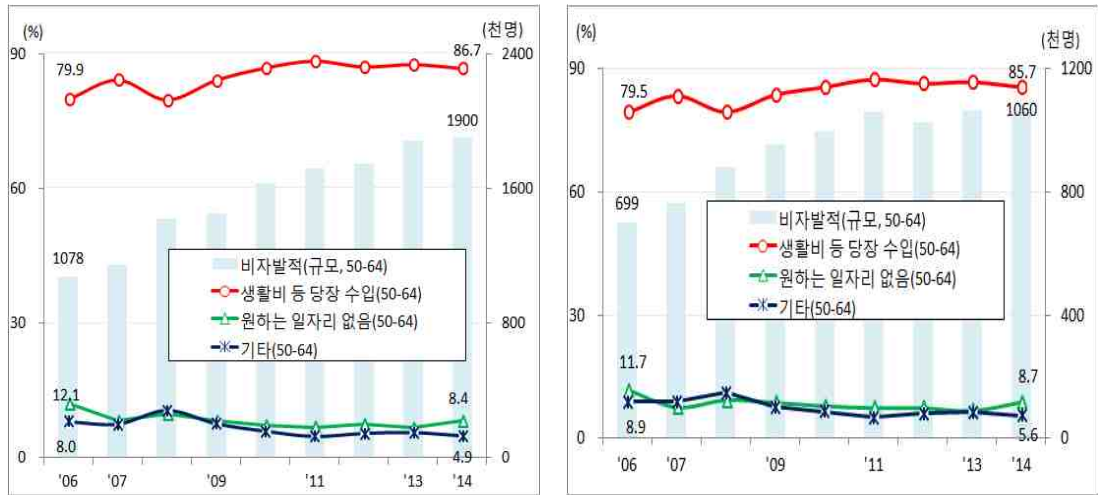
< 50-64인구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비자발적 사유 일자리 선택 동기 :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 선택 비율이 최근 9년간 3.1%p 증가한 95.1%
- 중고령 비정규직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 선택 비율은 최근 9년간 3.2%p 증가한 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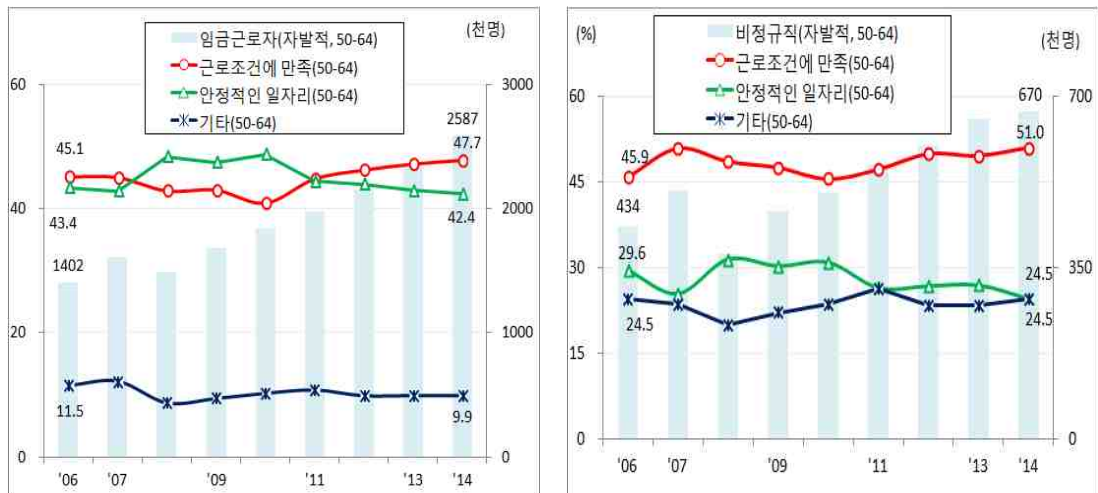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동기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자발적 사유 일자리 선택 동기 :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과 '안정적인 일자리' 선택 비율이 최근 9년간 2008년 91.3%까지 증가했다가 90.1%를 기록
- 중고령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과 '안정적인 일자리' 선택 비율이 최근 9년간 2008년 80.0%까지 증가했다가 75.5%를 기록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동기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동기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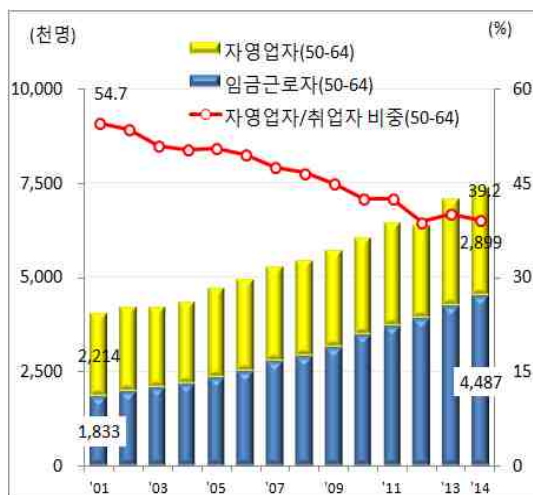
② 노동수요

□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규모가 여전히 크고 100인 미만 기업 근무와 단순 노무직 종사 비중은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광·제조업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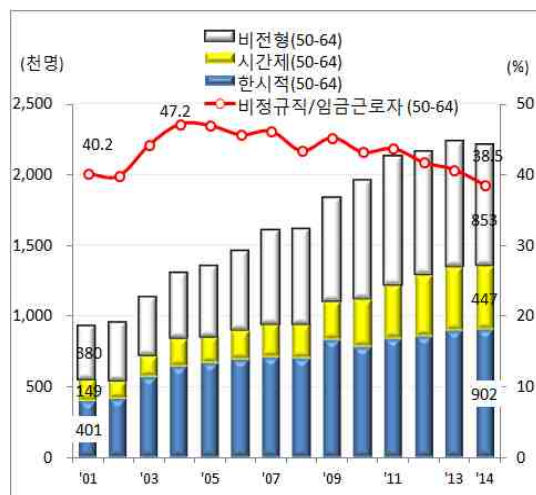
○ (취업형태 변화)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중이 하락세이나 전체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큼

- 자영업자 비중 : 중고령자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최근 14년간 15.5%p 하락하였으나 40%에 근접하고 전체 평균 하락 폭 10.2%p를 상회
 - 중고령자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1년 54.7%에서 2014년 39.2% 하락
 - 전체 인구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1년 37.7%에서 27.5%로 하락
 - 자영업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임
-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 중고령자의 비정규직 규모는 최근 10년간(2004년 이후) 8.7%p 하락했으나 전체 인구 하락 폭 4.6%p를 상회
 - 중고령자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40.2%에서 2004년 47.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38.5%로 2004년 이후 8.7%p 낮아짐
 - 전체 인구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7.0%에서 2014년 32.4%로 4.6%p 하락

< 50-64인구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추이 및 비중 >



< 50-64인구의 비정규직근로자 추이 및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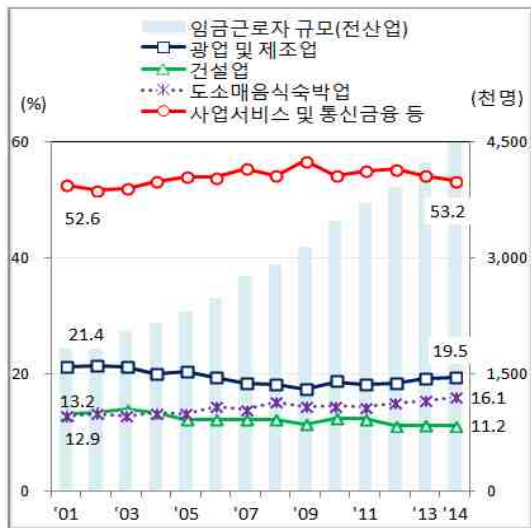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6) 전체인구의 통계 수치는 “【첨부】중고령자 일자리 관련 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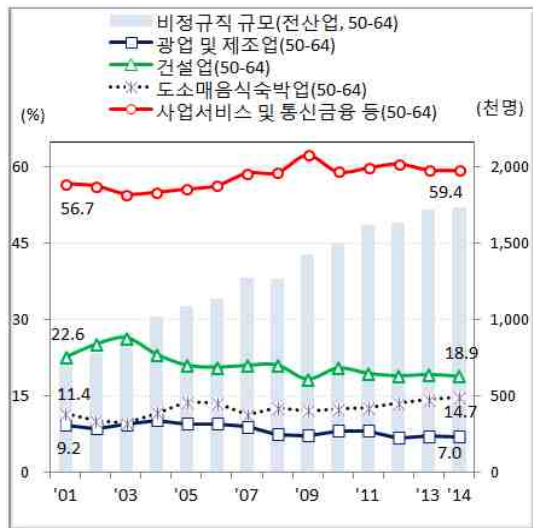
○ (산업별 추이) 중고령 근로자의 서비스 부문 비중이 상승세이나 광·제조업 부문은 하락세. 전체 평균 대비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 비중이 여전히 작음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 임금근로자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2010년 71.1%까지 증가했고 최근 14년간 3.8%p 증가하여 69.3% 차지하나 전체 인구의 규모 72.3% 대비 3.0%p 낮음
 - 중고령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사업서비스 및 통신금융 등'과 '도소매·음식숙박업'(서비스 부문)에서 3.8%p 증가하여 69.3% 차지
 -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14년간 6.0%p 증가하여 74.1%를 차지
 -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중고령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3.2%p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에서는 오히려 1.9%p 하락
 - '광업 및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고령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3.9%p 하락하여 30.7% 차지하고 전체 인구에서는 7.1%p 하락하여 27.7% 차지
 - 서비스 부문은 '사업서비스 및 통신금융 등'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을 합한 개념. '사업서비스 및 통신금융 등'은 '농업·임업·어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업'을 포함
- 비정규직 근로자 : 중고령자 비정규직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2010년 74.5%까지 증가했고 최근 14년간 6.0%p 증가하여 74.1%를 차지하나 전체 인구의 규모 80.6% 대비 6.5%p 낮음
 - 중고령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사업서비스 및 통신금융 등'과 '도소매·음식숙박업'(서비스 부문)에서 6.0%p 증가하여 74.1% 차지
 - 전체 인구 비정규직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 14년간 9.7%p 증가한 80.6% 차지
 - '광업 및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고령자 규모는 최근 14년간 5.9%p 하락하여 25.9% 차지하고 전체 인구에서는 9.8%p 하락하여 19.4% 차지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비중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산업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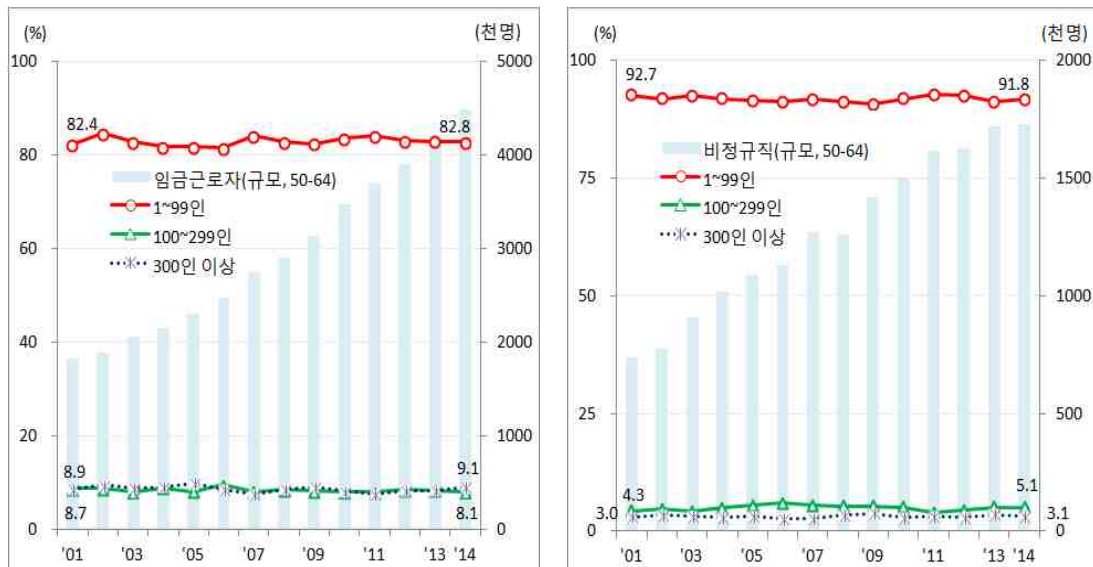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기업규모별) 중고령 근로자의 '1~99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세이며 전체 평균보다 큼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의 '1~99명 규모'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4%p 증가한 82.4%를 기록하여 전체 평균 78.1% 대비 4.3%p 높음
 - 중고령자의 '100~299인 규모'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8%p 하락한 8.1%, '300인 이상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4%p 증가한 9.1%
 - 전체 인구의 '100~299인 규모'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3%p 증가한 9.7%, '300인 이상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1%p 증가한 12.3%

- 비정규직 근로자 : 중고령자의 '1~99인 규모'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9%p 하락한 91.8%로 전체 평균 88.1% 대비 3.7%p 높음
 - 중고령자의 '100~299인 규모'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8%p 증가한 5.1%, '300인 이상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1%p 증가한 3.1%
 - 전체 인구의 '100~299인 규모'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1%p 증가한 5.8%, '300인 이상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은 최근 14년간 0.6%p 증가한 6.1%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비중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기업규모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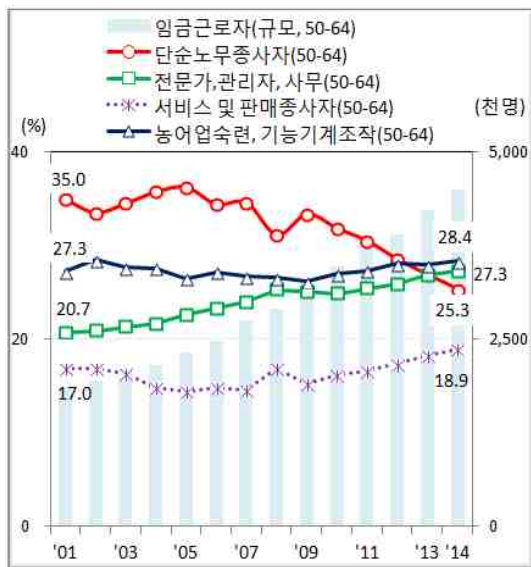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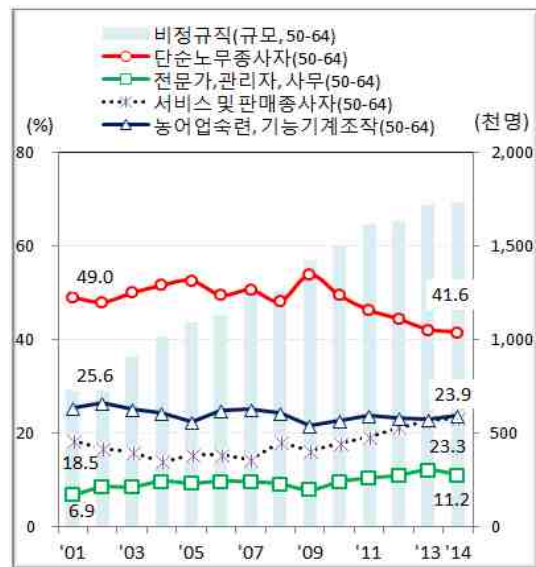
○ (직종별 추이)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순노무 비중이 하락세이나 전체 평균 대비 개선 정도가 미흡

- 임금근로자 : 중고령자 임금근로자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규모가 7.8%p 하락하여 44.2%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34.0% 대비 높음
 - 중고령자 임금근로자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서 비중이 최근 14년간 7.8%p 하락하여 44.2%를 기록
 - 전체 인구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서 비중이 최근 14년간 1.0%p 하락한 34.0% 기록
 -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자 부문에서 중고령자는 최근 14년간 6.6%p 증가하여 27.3% 기록하고 전체 평균 규모는 14년간 5.1%p 증가하여 45.6%를 차지
- 비정규직 근로자 : 중고령자 비정규직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에서 비중이 최근 14년간 2.6%p 하락하여 64.9%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54.8% 대비 높음
 - 중고령자 임금근로자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서 비중이 최근 14년간 2.6%p 하락하여 64.9%를 기록
 - 전체 인구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서 비중이 최근 14년간 0.4%p 하락한 54.8% 기록
 -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자 부문에서 중고령자는 최근 14년간 4.3%p 증가하여 11.2% 기록하고 전체 평균 규모는 최근 14년간 5.8%p 증가하여 29.1% 차지

< 50-64인구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비중 >



< 50-64인구 비정규직의 직업별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3. 종합 및 시사점

- (종합)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중고령 일자리의 개선이 보이나 전체 일자리의 개선 정도와 수준에 비해서는 미흡
 - 중고령자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임금수준이 개선되나 비자발적 선택 비중이 크고 수요 측면에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규모가 여전히 크고 100인 미만 기업 근무와 단순노무 비중이 높음
 - ① 노동공급 : 고용지표로 보면 중고령자의 고용률 상승이 지속되고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나 비자발적 일자리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음. 고학력·고임금 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저학력·중임금의 비중이 크게 하락
 - ② 노동수요 : 취업형태로 보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규모가 여전히 크고 전체 평균 대비 개선 정도 미흡. 업종별로는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광·제조업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 규모와 직종으로 보면, 100인 미만 기업 근무와 단순노무직 비중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 분석 종합 1 >

		전체			중고령자		
		2001(A)	2014(B)	B-A(%p)	2001(C)	2014(D)	D-C(%p)
① 노동공급							
고용 지표	고용률	59.3	60.8	1.5	64.2	70.6	6.4
	실업률	3.6	3.3	-0.3	2.2	2.2	0.0
학력 및 임금	대졸이상 비중	38.0	47.9	9.9	15.6	21.6	10.5
	고임금 비중	31.6	28.8	-3.4	25.7	28.2	2.5
	고학력·고임금	18.1	21.0	2.9	11.0	16.0	5.0
	저학력·고임금	3.6	4.4	0.8	11.0	7.1	-3.9
	저학력·중임금	14.6	8.0	-6.6	42.3	22.5	-19.8
	비자발적 선택비중	31.7('06)	32.2	0.5	43.5('06)	42.3	-1.2
자발 여부	비자발적 선택 동기	82.2('06)	86.5	4.3	92.0('06)	95.1	3.1
	자발적 선택 동기	83.7('06)	87.0	3.3	88.5('06)	90.1	1.6
② 노동수요							
취업 형태	자영업자 비중	37.7	27.5	-10.2	54.7	39.2	-15.5
	비정규직 비중	37.0('04)	32.4	-4.6	47.2('04)	38.5	-8.7
산업/ 규모	서비스 비중	65.2	72.3	7.1	65.5	69.3	3.8
	광·제조업 비중	25.6	20.5	-5.1	21.4	19.5	-1.9
업종	100인 미만 기업	78.3	78.1	-0.2	82.4	82.8	0.4
	단순노무직 비중	14.2	15.7	1.5	35.0	25.3	-9.7

주 : 1) 비자발적 선택 동기는 '비자발적' 경우의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을 의미.
 2) 자발적 선택 동기는 '근로조건에 만족'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의미.

<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 분석 종합 2 >

		전체			중고령자		
		2001(A)	2014(B)	B-A(%p)	2001(C)	2014(D)	D-C(%p)
① 노동공급(비정규직)							
학력	대졸이상 비중	28.7	32.8	4.1	6.6	14.9	8.3
	임금	고임금 비중	14.4	10.1	-4.3	8.2	8.5
자발 여부	비자발적 선택비율	48.5('06)	50.3	1.8	61.7('06)	61.3	-0.4
	비자발적 선택 동기	80.7('06)	85.3	4.6	91.2('06)	94.4	3.2
	자발적 선택 동기	70.1('06)	67.0	-3.1	75.5('06)	75.5('06)	0.0
② 노동수요(비정규직)							
산업/ 규모	서비스 비중	70.9	80.6	9.7	68.1	74.1	6.0
	광·제조업 비중	12.7	8.3	4.4	9.2	7.0	-2.2
	100인 미만 기업	88.8	88.1	-0.7	92.7	91.8	-0.9
업종	단순노무직 비중	27.5	30.8	3.3	49.0	41.6	-7.4

주 : 1) 비자발적 선택 동기는 '비자발적' 경우의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을 의미.
 2) 자발적 선택 동기는 '근로조건에 만족'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의미.

○ (시사점) 전반적인 중고령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일자리 개선 속도에 미치지 못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첫째, (노동공급 측면) 노동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필요

- 노동수요를 고려하여 산업과 직업분야, 기술 변화추세를 고려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둘째, (노동공급 측면) 중간수준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학력 및 임금 등 수준별 격차를 완화

-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간수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저학력 및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
- 중간수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력과 일자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임

셋째, (노동수요 측면) 기업내 교육 및 퇴직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업소개 및 일자리 매칭 역할을 확대

-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에서의 중고령자 인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 또는 민간사업에 중고령자 인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중고령자 일자리 교육훈련 개발 및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중고령층 근로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근로유인형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층적 소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

넷째, (노동수요 측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업종에 대한 성장 활력을 위한 발판 마련해야 함

-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고령화, 국제화 시대에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연공급적 임금체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유도로 선진국형의 임금체계 형성 유도

다섯째, (노동수요 측면) 단순노무업종 및 저임금,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일용직 등 단순노무 직종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 확충 필요
- 중고령자의 취업 비중이 높은 100인 미만 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예를 들어 중고령자 인구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정년 연장 등을 통해 60대 고령 인구도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야 함

산업전략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02-2072-6218, limhj9@hri.co.kr)

< 參考 文獻 >

- 고용노동부(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운영 안내서」, 11월.
- 고용노동부(2014), 「장년층 근로·구직 실태조사」, 7월.
- 고용노동부(2014), 「장년 고용 종합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9월.
- 김현학·황광명(2014),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
현상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4-29, 9월.
- 한국경제연구원(2014),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
교』, 정책연구2014-15, 11월 24일.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제공범위-추출-가구부문)(<http://mdss.kostat.go.kr/>)
- 현대경제연구원(2013),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경제주평, 7월 8일.
- 현대경제연구원(2012).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변화”, 현안과과제, 12
월 7일
- 현대경제연구원(2013), “최근 10년간 일자리 구조 변화의 특징”, VIP리포트, 4월
2일.
- 현대경제연구원(2013),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
사점”, 현안과과제, 8월 14일.
- 현대경제연구원(2014),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행”, 경제와
노후생활, 테마, 10월 7일.
- NBER(2014), “Unemployment in the Great Recession: A Comparison of
Germany,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November 25.
- Bell, David N. F. and Blanchflower, David G.(2013), "How to Measure
Underemployment?", Working Paper 13-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ugust.
- Blanchflower, David G.(2014), "Why we won't have real pay growth until
2015 at the earliest", Op-ed in the Independ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ovember 17.

- Blanchflower, David G. and Posen, Adam S.(2014), "Wages and Labor Market Slack: Making the Dual Mandate Operational", WP14-6, september 2014(Revised November 13, 2014)
- Bova, Elva, Kolerus, Christina, and Tapaoba, Sampawende J.-A.(2014), "A Fiscal Job? An Analysis of Fiscal Policy and the Labor Market", IMF Working Paper, WP/14/216.
- Johnson, Simon and Kurtz, Ronald A.(2015), "State of the US Economy and Policies that can promote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earing 「Jobs and a Healthy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13.
- Wolfers, Justin (2015), "Job Creation and a Healthy Economy",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earing 「Jobs and a Healthy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2
- OECD(2014),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Korean version): Measuring Well-being ..."
-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September 03
- OECD,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
- OECD(Pensions at a Glance 2011 & 2013)

【첨부】 중고령자 일자리 관련 지표

< 중고령자 관련 고용인구 추이 및 비중 > (단위: 천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0-64 인구	6306	6472	6646	6869	7282	7608	7933	8174	8581	9021	9450	9820	10142	10467
15-64대비(%)	19.1	19.5	19.9	20.5	21.5	22.3	23.1	23.6	24.6	25.6	26.6	27.5	28.2	29.0
15세이상인구 대비 비중(%)	17.2	17.5	17.8	18.2	18.9	19.6	20.2	20.6	21.4	22.2	23.0	23.6	24.1	24.6
50-64 취업자	4047	4208	4209	4347	4694	4932	5264	5455	5707	6058	6446	6691	7069	7386
전체대비(%)	18.6	18.9	19.0	19.4	20.5	21.3	22.4	23.1	24.2	25.2	26.3	26.9	28.0	28.5
50-64 실업자	91	77	86	101	115	105	106	102	141	138	136	168	136	162
전체대비(%)	11.0	10.5	10.6	11.9	13.7	13.0	14.0	13.3	15.6	16.7	17.8	22.0	17.3	18.2
50-64 비경험인구	2169	2187	2352	2421	2472	2572	2563	2618	2733	2824	2868	2961	2937	2918
전체대비(%)	15.4	15.6	16.3	16.6	16.8	17.3	17.1	17.1	17.5	17.9	18.1	18.5	18.3	18.5
50-64인구														
고용률(%)	64.2	65.0	63.3	63.3	64.5	64.8	66.4	66.7	66.5	67.2	68.2	68.1	69.7	70.6
실업률(%)	2.2	1.8	2.0	2.3	2.4	2.1	2.0	1.8	2.4	2.2	2.1	2.4	1.9	2.2
15세이상 인구														
고용률(%)	59.3	60.0	59.2	59.3	59.5	59.6	59.8	59.6	58.8	59.1	59.6	59.7	60.0	60.8
실업률(%)	3.6	3.2	3.5	3.6	3.6	3.4	3.1	3.1	3.7	3.3	3.0	3.0	3.0	3.3

<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학력과 임금수준별 추이 > (단위: 천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고령자(50-64)	1833	1948	2057	2155	2315	2480	2754	2907	3138	3474	3701	3903	4223	4487
대졸 고임금	11.0	11.8	11.6	11.5	12.2	12.3	12.9	14.6	15.0	14.7	14.8	14.4	15.5	16.0
대졸 중임금	4.3	3.7	3.1	3.8	3.7	4.8	4.4	4.9	5.0	5.3	6.0	7.0	7.9	8.8
대졸 저임금	0.3	0.3	0.4	0.5	0.4	0.4	0.8	0.7	0.9	0.9	0.9	1.2	1.6	1.3
고졸 고임금	9.6	11.7	9.1	8.9	9.5	7.7	8.7	8.4	9.1	9.6	9.7	9.2	9.3	10.1
고졸 중임금	14.6	13.6	16.3	17.2	17.8	20.9	20.9	22.1	22.0	22.3	23.6	24.4	26.5	27.6
고졸 저임금	1.8	1.7	2.4	3.3	3.2	3.5	4.6	3.6	4.1	4.3	4.2	5.5	4.6	4.5
중졸 고임금	5.1	6.6	4.6	4.3	3.9	2.8	2.9	2.6	2.2	2.8	2.9	2.0	2.1	2.1
중졸 중임금	42.3	41.7	39.4	35.2	34.7	34.0	29.1	30.8	30.9	30.6	29.7	26.8	23.8	22.5
중졸 저임금	11.0	8.8	13.2	15.3	14.6	13.6	15.6	12.3	10.7	9.4	8.3	9.6	8.8	7.1
전체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대졸 고임금	18.1	19.7	18.2	17.7	19.2	16.0	17.5	19.3	20.2	21.5	21.7	19.8	20.4	21.0
대졸 중임금	17.8	18.1	16.9	18.4	17.9	22.2	21.9	22.5	22.0	21.3	22.6	24.8	25.6	25.0
대졸 저임금	2.2	1.9	1.1	1.4	1.4	1.5	1.9	1.4	1.7	1.7	1.5	2.0	2.0	1.9
고졸 고임금	11.5	13.0	9.9	9.4	9.3	6.9	6.9	7.0	7.0	7.9	8.0	6.3	6.5	7.1
고졸 중임금	27.4	25.6	29.4	28.4	28.6	30.7	28.4	28.5	27.2	26.7	25.9	26.1	25.7	26.0
고졸 저임금	3.0	2.3	5.0	6.0	5.7	5.3	6.6	5.5	5.9	5.3	5.1	6.4	5.9	5.8
중졸 고임금	2.0	2.4	1.4	1.3	1.2	0.8	0.8	0.7	0.6	0.8	0.9	0.6	0.6	0.7
중졸 중임금	14.6	14.2	13.6	12.1	11.8	11.7	10.2	10.5	10.4	10.2	9.8	9.0	8.4	8.0
중졸 저임금	3.6	2.9	4.4	5.2	4.9	5.0	5.8	4.7	4.9	4.7	4.6	5.0	4.8	4.4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 중고령 비정규직의 학력과 임금수준별 추이 > (단위: 천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고령자(50-64)	737	776	910	1017	1088	1133	1272	1261	1421	1502	1619	1630	1720	1730
대학졸	2.0	3.8	2.4	3.0	2.3	2.4	3.3	3.1	2.7	2.9	3.4	3.4	4.0	3.9
대졸졸	3.9	2.5	3.5	3.7	3.5	4.3	3.2	4.1	5.0	5.0	5.5	6.1	7.3	8.3
대졸	0.6	0.6	0.5	0.6	0.6	0.5	1.3	1.0	1.6	1.4	1.8	2.2	2.9	2.7
고졸	3.2	4.5	2.6	2.7	2.9	2.1	2.5	2.1	1.9	3.3	3.6	3.5	3.4	3.6
고졸	15.3	15.8	16.4	18.2	19.1	21.9	21.6	24.6	24.0	23.7	25.2	25.1	26.8	29.0
고졸	3.2	3.8	4.3	5.5	5.1	6.2	7.7	6.3	7.3	8.4	7.7	10.7	8.9	9.6
중졸	3.0	5.4	2.1	2.4	1.8	1.2	1.7	1.1	0.9	1.3	1.4	0.8	0.9	1.0
중졸	47.2	46.1	45.1	37.7	39.7	37.3	32.5	35.5	37.5	36.7	35.2	30.6	28.4	27.5
중졸	21.5	17.6	22.9	26.1	25.1	24.0	26.2	22.1	19.1	17.3	16.2	17.6	17.3	14.4
전체	3635	3839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대학졸	6.4	8.2	6.7	8.3	8.7	7.0	8.1	7.4	6.0	6.8	7.3	6.4	6.3	6.4
대졸졸	16.1	16.9	14.6	16.1	15.3	18.4	18.1	19.1	18.5	18.8	20.1	19.8	20.7	21.1
대졸	6.3	5.6	2.6	2.8	2.7	3.3	3.6	2.9	3.8	4.0	3.6	4.7	4.8	4.8
고졸	6.2	8.1	4.2	4.8	4.4	2.6	2.8	2.6	2.3	3.1	3.7	2.8	2.7	3.3
고졸	24.6	24.2	29.3	27.6	29.2	29.5	27.7	29.7	28.2	27.2	26.8	25.7	25.9	25.7
고졸	8.2	6.7	12.0	12.3	11.9	11.9	13.2	12.3	13.2	13.2	12.7	15.5	15.0	15.1
중졸	1.7	2.6	1.0	1.1	0.8	0.4	0.6	0.5	0.4	0.5	0.5	0.3	0.3	0.4
중졸	19.9	19.4	18.8	15.5	16.2	15.5	13.4	14.5	15.9	14.9	14.0	12.6	12.1	11.8
중졸	10.6	8.2	10.9	11.4	10.7	11.4	12.5	11.0	11.6	11.5	11.3	12.2	12.2	11.4

<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 > (단위: 천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50-64)	2480	2754	2907	3138	3474	3701	3903	4223	4487
자발적	56.5	58.4	51.1	53.8	53.1	53.5	55.3	55.5	57.7
비자발적	43.5	41.6	48.9	46.2	46.9	46.5	44.7	44.5	42.3
임금근로자(전체)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자발적	68.3	69.9	61.6	65.0	65.4	66.3	67.8	67.6	67.8
비자발적	31.7	30.1	38.4	35.0	34.6	33.7	32.2	32.4	32.2
비정규직(50-64)	1133	1272	1261	1421	1502	1619	1630	1720	1730
자발적	38.3	40.0	29.9	32.8	33.5	34.6	36.9	38.0	38.7
비자발적	61.7	60.0	70.1	67.2	66.5	65.4	63.1	62.0	61.3
비정규직(전체)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자발적	51.5	53.8	40.2	42.7	45.5	47.6	49.0	48.8	49.7
비자발적	48.5	46.2	59.8	57.3	54.5	52.4	51.0	51.2	5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임금근로자의 비자발적 일자리 선택 동기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50-64)									
생활비 등 당장 수입	79.9	84.2	79.8	84.1	86.8	88.3	87.1	87.6	86.7
원하는 일자리 없음	12.1	8.3	9.7	8.3	7.2	6.9	7.5	6.8	8.4
전공 경력에 맞는	2.5	1.8	1.7	1.6	1.5	1.1	1.7	1.6	1.2
일자리 없음									
직장이동 등	0.5	0.3	0.5	0.5	0.6	0.4	0.5	0.3	0.6
육아가사 병행 등	5.0	5.4	8.3	5.5	3.8	3.3	3.3	3.7	3.1
임금근로자(전체)									
생활비 등 당장 수입	64.5	70.0	62.2	68.6	71.8	74.8	73.4	72.9	72.7
원하는 일자리 없음	17.7	14.2	14.3	13.1	13.0	12.2	12.0	13.3	13.8
전공 경력에 맞는	4.9	3.8	3.6	4.5	4.1	3.6	3.7	4.1	3.6
일자리 없음									
직장이동 등	4.7	4.0	7.1	4.8	4.6	3.7	4.4	3.9	4.1
육아가사 병행 등	8.3	8.0	12.7	9.1	6.5	5.7	6.6	5.8	5.8

주 : '육아가사 병행 등'은 직업훈련 취업준비,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 할 수 있어서, 기타를 포함.

<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일자리 선택 동기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50-64)									
생활비 등 당장 수입	79.5	83.6	79.6	83.8	85.7	87.5	86.5	86.9	85.7
원하는 일자리 없음	11.7	7.6	9.2	8.7	7.9	7.4	7.4	6.8	8.7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	2.2	1.8	1.7	1.3	1.5	1.0	1.4	1.4	0.9
직장이동	0.5	0.2	0.3	0.4	0.4	0.2	0.3	0.1	0.8
육아가사 병행 등	6.1	6.8	9.2	5.8	4.6	3.8	4.3	4.9	3.9
비정규직(전체)									
생활비 등 당장 수입	65.2	71.2	63.7	69.9	72.6	76.5	74.5	73.1	72.8
원하는 일자리 없음	15.5	11.6	12.4	11.9	11.7	10.1	10.5	11.6	12.5
전공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	3.9	3.3	3.2	3.7	2.9	2.9	2.9	3.6	2.7
직장이동	3.4	2.6	4.4	3.1	3.2	2.7	2.7	2.7	3.2
육아가사 병행 등	12.0	11.3	16.3	11.5	9.5	7.9	9.4	8.9	8.8

주 : '육아가사 병행 등'은 직업훈련 취업준비,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 할 수 있어서, 기타를 포함.

< 임금근로자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동기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50-64)									
근로조건에 만족	45.1	45.0	42.9	43.0	40.9	44.8	46.2	47.1	47.7
안정적인 일자리	43.4	42.8	48.4	47.5	48.8	44.4	43.9	42.9	42.4
직장이동 등	0.7	1.1	0.5	0.5	0.7	0.7	0.9	0.4	0.7
육아가사 병행	1.9	2.4	1.7	2.3	2.1	2.3	2.4	2.7	2.6
직업훈련 취업준비	0.0	0.0	0.0	0.0	0.0	0.1	0.0	0.0	0.1
노력한 만큼 수입	6.1	6.0	3.7	4.0	4.7	5.2	4.2	4.0	3.7
근무시간 신축적 조절	2.0	1.8	1.8	1.6	1.8	1.4	2.0	2.4	2.3
기타	0.8	0.9	1.0	0.9	0.9	1.1	0.4	0.5	0.6
임금근로자(전체)									
근로조건에 만족	44.7	42.0	41.5	42.9	41.8	44.8	45.5	46.6	47.0
안정적인 일자리	39.0	41.6	45.9	44.2	44.2	41.4	41.7	41.2	40.0
직장이동 등	6.2	6.2	5.3	4.1	4.4	4.2	4.1	3.5	3.9
육아가사 병행	1.9	2.2	1.4	2.0	2.2	2.1	2.2	2.3	2.4
직업훈련 취업준비	1.8	1.7	1.5	1.9	1.7	2.1	1.8	1.9	2.2
노력한 만큼 수입	4.5	4.3	2.6	3.1	3.6	3.2	3.0	2.8	2.7
근무시간 신축적 조절	1.4	1.6	1.3	1.3	1.5	1.5	1.4	1.4	1.5
기타	0.5	0.4	0.6	0.5	0.6	0.5	0.3	0.3	0.4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 비정규직의 자발적 일자리 선택 동기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정규직(50-64)									
근로조건에 만족	45.9	50.9	48.6	47.6	45.6	47.3	49.9	49.6	51.0
안정적인 일자리	29.6	25.4	31.4	30.3	30.9	26.4	26.8	26.9	24.5
직장이동 등	0.4	1.8	0.6	1.0	1.0	1.5	1.3	0.9	1.1
육아가사 병행	5.3	6.4	6.0	7.0	5.5	5.9	6.5	6.5	7.9
직업훈련 취업준비	0.0	0.1	0.0	0.0	0.1	0.2	0.0	0.1	0.2
노력한 만큼 수입	13.5	10.0	8.1	9.2	11.3	13.4	10.8	9.2	7.3
근무시간 산책적 조절	4.6	4.1	4.2	4.0	4.3	3.4	4.6	6.4	6.8
기타	0.7	1.2	1.0	1.0	1.3	1.8	0.1	0.4	1.1
비정규직(전체)									
근로조건에 만족	42.1	41.5	41.6	43.7	41.1	44.4	46.3	46.9	46.0
안정적인 일자리	28.0	28.1	29.1	23.6	23.9	23.2	22.9	22.9	21.0
직장이동 등	6.4	6.5	8.1	5.9	6.1	5.4	5.5	4.3	5.4
육아가사 병행	5.7	6.1	5.3	6.8	7.2	6.8	6.9	7.3	8.1
직업훈련 취업준비	4.8	4.2	5.3	6.7	6.0	6.8	6.0	7.2	7.7
노력한 만큼 수입	9.0	9.0	5.8	8.6	10.0	8.2	7.8	6.9	6.5
근무시간 산책적 조절	3.1	3.8	3.8	3.8	4.3	4.3	3.9	4.1	4.7
기타	0.8	0.8	1.0	0.9	1.3	0.9	0.6	0.5	0.7

<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자, 비정규직 추이 >

(단위: 천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50-64)	1833	1948	2057	2155	2315	2480	2754	2907	3138	3474	3701	3903	4223	4487
자영업자(50-64)	2214	2260	2152	2193	2379	2452	2509	2548	2568	2584	2745	2483	2847	2899
취업자 대비 비중(%)	54.7	53.7	51.1	50.4	50.7	49.7	47.7	46.7	45.0	42.7	42.6	38.9	40.3	39.2
임금근로자(전체)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자영업자(전체)	8198	8193	7978	7797	7878	7813	7575	7513	7141	6957	6985	7125	7051	7108
취업자 대비 비중(%)	37.7	36.9	36.1	34.8	34.5	33.7	32.3	31.8	30.2	29.0	28.5	28.7	27.9	27.5
비정규직(50-64)														
한시직	401	411	572	644	665	693	703	696	832	779	838	851	891	902
시간제	149	127	146	193	184	204	237	242	266	333	377	434	450	447
비전형	380	419	415	468	502	558	666	676	729	841	904	866	887	853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40.2	39.8	44.3	47.2	47.0	45.7	46.2	43.4	45.3	43.2	43.7	41.8	40.7	38.5
비정규직(전체)														
한시직	1865	2063	3013	3597	3614	3626	3546	3288	3330	3281	3442	3403	3431	3507
시간제	878	807	929	1072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비전형	1702	1742	1678	1948	1907	1933	2208	2137	2283	2289	2427	2286	2215	2112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26.8	27.4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산업별 비중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0-64 인구														
광업 및 제조업	21.4	21.6	21.2	20.0	20.5	19.5	18.4	18.3	17.4	18.8	18.3	18.5	19.2	19.5
건설업	13.2	13.5	14.0	13.5	12.3	12.2	12.3	12.3	11.5	12.5	12.3	11.1	11.2	11.2
도매업·수업	12.9	13.2	12.9	13.4	13.3	14.4	14.0	15.3	14.4	14.6	14.4	15.1	15.4	16.1
서비스업	52.6	51.6	51.9	53.2	54.0	53.8	55.3	54.1	56.7	54.2	55.0	55.2	54.1	53.2
임금근로자 전체 인구														
광업 및 제조업	25.6	24.9	24.6	24.0	23.0	22.0	21.3	21.0	19.7	20.5	19.8	20.1	19.9	20.5
건설업	9.2	9.2	9.3	8.9	8.9	8.8	8.8	8.7	8.0	8.1	8.0	7.4	7.4	7.2
도매업·수업	21.0	21.2	19.8	19.7	19.8	19.4	19.6	18.9	18.4	18.5	18.2	18.5	18.4	19.1
서비스업	44.2	44.7	46.3	47.3	48.3	49.8	50.4	51.5	53.9	52.8	54.0	53.9	54.3	53.2
비정규직 50-64 인구														
광업 및 제조업	9.2	8.5	9.4	10.2	9.5	9.5	8.9	7.4	7.2	8.1	8.0	6.7	7.1	7.0
건설업	22.6	25.1	26.4	23.2	21.1	20.7	21.0	21.1	18.4	20.5	19.5	19.0	19.2	18.9
도매업·수업	11.4	10.1	9.6	11.6	13.8	13.5	11.2	12.6	12.0	12.3	12.6	13.6	14.2	14.7
서비스업	56.7	56.3	54.7	55.0	55.7	56.3	58.9	58.9	62.5	59.1	59.9	60.7	59.5	59.4
비정규직 전체 인구														
광업 및 제조업	12.7	12.3	13.1	15.2	13.0	12.4	12.2	10.2	9.1	9.2	9.0	8.5	8.5	8.3
건설업	16.5	17.6	18.2	15.2	15.3	14.4	14.1	14.1	12.6	12.6	12.0	11.7	11.6	11.1
도매업·수업	23.7	22.3	21.3	20.5	21.8	19.3	19.4	19.6	18.3	18.6	18.1	18.7	19.0	19.7
서비스업	47.2	47.8	47.5	49.1	50.0	53.9	54.3	56.1	59.9	59.6	60.9	61.1	60.8	6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서비스 및 금융 등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포함.

<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기업규모별 비중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0-64 인구														
1~29	63.6	64.7	63.2	61.6	62.3	62.3	64.8	64.1	63.0	63.9	65.3	64.8	63.6	63.7
30~99	18.8	20.2	19.8	20.3	19.7	19.3	19.4	18.8	19.6	19.7	19.0	18.3	19.4	19.1
100~299	8.9	8.8	8.1	8.9	8.2	9.7	8.1	8.5	8.3	8.1	8.1	8.6	8.4	8.1
300인 이상	8.7	9.5	9.0	9.2	9.9	8.7	7.7	8.6	9.2	8.2	7.6	8.3	8.5	9.1
임금근로자 전체 인구														
1~29	59.6	62.1	58.3	57.6	57.7	58.1	59.2	59.1	57.7	58.4	58.8	59.2	58.6	58.7
30~99	18.7	19.8	19.4	19.7	19.7	19.7	19.6	19.5	20.1	20.4	19.8	19.3	19.9	19.4
100~299	9.4	9.6	9.8	10.2	9.9	10.2	9.7	9.9	10.0	9.8	10.1	9.8	9.5	9.7
300인 이상	12.2	11.9	12.5	12.4	12.7	12.0	11.5	11.5	12.1	11.3	11.2	11.7	12.0	12.3
비정규직 50-64 인구														
1~29	78.4	75.5	77.3	75.3	75.4	76.2	77.4	77.4	75.1	76.1	77.4	77.1	74.4	75.7
30~99	14.3	16.4	15.3	16.6	16.1	15.0	14.4	13.8	15.8	15.9	15.6	15.5	16.9	16.1
100~299	4.3	4.7	4.2	5.0	5.4	6.1	5.5	5.3	5.4	5.1	3.9	4.5	5.1	5.1
300인 이상	3.0	3.4	3.2	3.0	3.1	2.7	2.6	3.4	3.8	3.0	3.2	2.9	3.6	3.1
비정규직 전체 인구														
1~29	72.9	70.5	70.7	67.2	67.5	67.1	68.0	69.7	68.9	69.2	69.8	70.4	70.0	70.5
30~99	15.9	17.3	17.1	17.8	17.9	18.2	18.0	17.2	18.4	19.4	18.3	18.0	18.1	17.6
100~299	5.7	5.9	6.5	8.1	7.8	7.9	7.8	7.2	6.8	6.2	6.3	6.4	6.4	5.8
300인 이상	5.5	6.2	5.7	6.9	6.8	6.8	6.3	5.9	6.0	5.2	5.6	5.2	5.6	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 중고령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직종별 비중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50-64 인구														
단순노무	35.0	33.6	34.6	35.8	36.3	34.5	34.7	31.2	33.4	31.9	30.5	28.6	26.9	25.3
전문·관리·사무	20.7	20.9	21.4	21.7	22.6	23.4	24.0	25.3	25.1	24.9	25.5	26.0	26.9	27.3
서비스 및 판매	17.0	17.0	16.4	14.9	14.5	14.9	14.6	16.9	15.3	16.2	16.7	17.4	18.3	18.9
기능·기계·조작	27.3	28.5	27.7	27.6	26.6	27.2	26.7	26.6	26.2	27.0	27.3	28.1	28.0	28.4
임금근로자 전체 인구														
단순노무	14.2	13.9	14.6	15.9	16.3	16.2	16.7	15.9	17.6	16.9	16.8	16.0	15.7	15.7
전문·관리·사무	40.5	41.0	43.8	41.5	41.6	42.4	43.1	44.6	44.2	44.7	45.7	45.5	46.1	45.6
서비스 및 판매	18.8	19.1	17.8	18.5	18.6	18.3	18.0	18.2	17.9	17.7	17.3	18.0	17.7	18.3
기능·기계·조작	26.5	25.9	23.7	24.1	23.5	23.2	22.1	21.3	20.3	20.6	20.2	20.5	20.5	20.4
비정규직 50-64 인구														
단순노무	49.0	48.0	50.1	51.7	52.7	49.5	50.7	48.3	54.0	49.5	46.3	44.4	42.2	41.6
전문·관리·사무	6.9	8.6	8.6	9.8	9.4	9.9	9.7	9.3	8.0	9.7	10.5	11.0	12.2	11.2
서비스 및 판매	18.5	16.7	16.0	14.0	15.5	15.5	14.3	18.1	16.2	17.9	19.2	21.3	22.7	23.3
기능·기계·조작	25.6	26.6	25.3	24.5	22.4	25.1	25.3	24.3	21.8	22.9	23.9	23.2	23.0	23.9
비정규직 전체 인구														
단순노무	27.5	26.5	27.7	27.0	28.8	28.6	29.1	29.5	34.2	32.2	31.2	30.4	30.7	30.8
전문·관리·사무	23.3	25.6	27.8	28.8	27.3	29.3	29.6	29.0	26.4	28.0	29.5	29.2	29.6	29.1
서비스 및 판매	26.9	24.6	23.5	21.9	23.1	21.7	21.6	22.7	22.1	22.7	22.5	24.1	23.5	24.0
기능·기계·조작	22.3	23.2	21.0	22.2	20.7	20.4	19.7	18.8	17.4	17.0	16.8	16.3	16.1	1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1) 전문·관리·사무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2) 서비스 및 판매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3) 기능·기계·조작은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여부 비율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50-64)									
예	19.2	17.8	20.6	27.2	26.9	30.5	33.3	41.8	46.0
아니오	80.8	82.2	79.4	72.8	73.1	69.5	66.7	58.2	54.0
임금근로자(전체)									
예	28.0	24.9	26.8	30.8	31.2	35.5	37.2	46.9	52.5
아니오	72.0	75.1	73.2	69.2	68.8	64.5	62.8	53.1	47.5
비정규직(50-64)									
예	12.7	11.9	14.5	21.0	21.0	23.5	25.3	33.7	37.0
아니오	87.3	88.1	85.5	79.0	79.0	76.5	74.7	66.3	63.0
비정규직(전체)									
예	22.2	18.6	19.8	23.5	24.4	27.8	28.8	37.3	43.1
아니오	77.8	81.4	80.2	76.5	75.6	72.2	71.2	62.7	56.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 국민연금과 건강) 가입 비중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0-64 인구															
고용	예	36.3	37.3	36.6	40.8	42.6	43.8	45.7	48.0	53.8	56.3	56.5	58.4	60.1	62.8
	아니오	63.7	62.7	63.4	59.2	57.4	56.2	54.3	52.0	46.2	43.7	43.5	41.6	39.9	37.2
연금	직장가입자	43.5	44.0	46.6	49.9	51.6	53.5	52.7	54.8	56.9	54.7	51.6	53.3	54.3	57.6
	미가입자	56.5	56.0	53.4	50.1	48.4	46.5	47.3	35.4	32.6	34.6	37.9	35.8	34.6	31.0
	지역가입자								9.8	10.5	10.6	10.5	10.9	11.1	11.4
건강	직장가입자	47.1	48.7	51.1	54.4	54.6	56.1	56.4	58.3	63.0	60.0	60.2	62.0	63.9	65.0
	미가입자	52.9	51.3	48.9	45.6	45.4	43.9	43.6	6.8	3.2	2.6	2.8	1.5	1.3	1.3
	지역가입자								34.9	33.9	37.4	37.0	36.5	34.9	33.7
전체 인구															
고용	예	47.4	48.0	49.8	52.1	53.1	54.6	55.3	56.8	58.9	63.3	64.6	66.2	67.7	68.8
	아니오	52.6	52.0	50.2	47.9	46.9	45.4	44.7	43.2	41.1	36.7	35.4	33.8	32.3	31.2
연금	직장가입자	52.2	52.7	57.7	59.5	61.4	62.6	63.2	64.3	64.7	65.0	65.1	66.5	67.6	67.9
	미가입자	47.8	47.3	42.3	40.5	38.6	37.4	36.8	29.4	28.8	28.3	29.0	27.3	26.1	25.5
	지역가입자								6.3	6.4	6.7	5.9	6.2	6.4	6.6
건강	직장가입자	54.7	55.5	59.5	61.3	61.9	63.2	64.4	65.6	67.1	67.0	68.3	69.9	71.3	71.4
	미가입자	45.3	44.5	40.5	38.7	38.1	36.8	35.6	6.1	3.6	2.7	2.4	1.2	1.3	1.2
	지역가입자								28.3	29.3	30.3	29.2	28.8	27.4	2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고용, 국민연금과 건강) 가입 비중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0-64 인구															
고용	예	19.0	22.0	21.0	27.0	27.9	30.6	33.5	38.0	48.1	43.4	43.1	45.0	44.6	46.0
	아니오	81.0	78.0	79.0	73.0	72.1	69.4	66.5	62.0	51.9	56.6	56.9	55.0	55.4	54.0
연금	직장가입자	20.4	21.0	23.5	28.3	28.8	31.1	30.3	34.1	36.7	34.1	29.6	31.2	31.4	33.1
	미가입자	79.6	79.0	76.5	71.7	71.2	68.9	69.7	51.4	47.9	49.8	54.4	51.6	51.3	48.1
	지역가입자								14.5	15.4	16.1	16.0	17.2	17.3	18.8
건강	직장가입자	24.1	26.4	28.2	34.1	33.2	35.5	35.8	39.2	46.2	41.6	41.3	43.3	43.9	43.3
	미가입자	75.9	73.6	71.8	65.9	66.8	64.5	64.2	9.7	4.9	3.7	3.5	2.1	2.2	2.1
	지역가입자								51.1	48.9	54.7	55.2	54.6	53.9	54.6
전체 인구															
고용	예	21.6	26.2	29.2	36.1	34.5	36.3	39.2	39.2	42.7	41.0	42.3	43.3	43.6	43.8
	아니오	78.4	73.8	70.8	63.9	65.5	63.7	60.8	60.8	57.3	59.0	57.7	56.7	56.4	56.2
연금	직장가입자	22.2	25.7	30.5	37.5	36.6	38.2	40.0	39.0	38.2	38.1	38.2	39.0	39.2	38.4
	미가입자	77.8	74.3	69.5	62.5	63.4	61.8	60.0	50.3	50.9	50.5	51.4	50.0	49.2	49.3
	지역가입자								10.8	10.9	11.5	10.4	11.0	11.6	12.3
건강	직장가입자	24.4	28.8	32.6	40.1	37.7	40.0	42.5	41.5	43.4	42.1	44.1	45.4	46.2	44.7
	미가입자	75.6	71.2	67.4	59.9	62.3	60.0	57.5	10.6	6.7	4.5	4.1	2.3	2.4	2.3
	지역가입자								47.9	49.9	53.4	51.7	52.4	51.4	5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8월)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